



10. 조선 지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군현 밑에는 면, 리, 통을 두고 다섯 집을 1통으로 편제하였다.
- ㄴ. 수령은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며,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업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 ㄷ. 향리는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였으며, 아전으로 신분이 격하되었다.
- ㄹ. 각 군현에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 경재소를 설치하였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11. <보기>의 기사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의 빈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노라.……나는 큰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였으니, 즉 자작자급(自作自給)치 아니함이라 하노라. 환언하면 조선 물산을 장려치 아니함이니 고로 오인(吾人)이 이에 대서특서(大書特書)하고 절규 고창하는 바는 자작자급 하자 함이니 즉 조선 물산을 장려함이 또 환언하면 보호무역을 의미함이니 이것이 조선인의 가장 큰 문제라 하노라.

- ① 500여 명의 인사가 민립대학설립기성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에 나섰다.  
② “조선인이 만든 것을 입고, 먹고, 쓰자”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민족자본을 육성하려 하였다.  
③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국민성금으로 국채를 갚자는 운동을 일으켰다.  
④ 조선어학회가 참여하였으며,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12. <보기>의 (가),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 귀환(鬼幻)으로만 여겼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무엇을 볼 것인가.  
(나)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 ① (가) -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② (가) -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③ (나) -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④ (나) -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13. <보기>의 조치를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노산대군의 시호를 올리고 (중략) 묘호를 단종이라 하였다.
- 임금이 친히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하였다.
- 충무공 이순신의 사우(祠宇)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렸다.

- ① 왕권 강화를 위해 수시로 환국을 단행하였다.  
② 수원에 새로운 성곽도시인 화성을 건설하였다.  
③ 명의 요청을 수용하여 중국에 원병을 파견하였다.  
④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 군역법을 시행했다.

14. <보기>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백성들이 2필의 응역(應役)에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 그 폐단을 줄이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1필을 감하고 어(漁)·염(鹽)·선(船)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 아! 예부터 민역(民役)을 줄이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너덕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 ①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②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명과 후금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였다.  
③ 호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창경궁 홍화문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④ 흉년을 당해 결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하여 『자휼전칙』을 반포하였다.

15. <보기>의 정강을 내세운 개혁 운동의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 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②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③ 이만손을 필두로 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④ 청·일 양국은 군대 파견시, 상호 통보기로 합의하였다.

16. 1948년 남북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추진되었다.
- ㄴ. 좌·우 정치세력의 합작을 위한 7원칙을 발표하였다.
- ㄷ.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하였다.
- ㄹ. 회의 결과,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7. 고려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실과 혼인을 통해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가문이 나타났다.
- ② 상층 향리인 호장층은 지방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 ③ 서민이 손쉽게 출세하는 벼슬은 궁궐의 잡무를 맡은 서리층으로 이를 산관이라 했다.
- ④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 굽는 염부를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뱃사공을 진척이라 불렀다.

18. <보기>의 결정을 내린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셋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

- 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 ②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다.
- ③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하였다.
- ④ 이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다.

19. <보기> 이야기의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오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 절의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습격하니 성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大聖)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울면서 세 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의 사자와 아래에 감추어 두고 뒤돌아보며 돌아갔다.
- 『삼국유사』

- 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 ②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불교행사를 억제하고, 유교사상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정비하도록 건의하였다.
- ③ 동리산문의 승려이자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개성, 평양, 한양이 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여 고려왕들의 존숭을 받았다.
- ④ 신라 말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광찬과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20. <보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조정의 사대부들이 걸모양으로는 서로 사이가 좋으나, 마음속으로는 시기하여 심지어 은밀하게 중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전이 함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겸병이 더욱 심하여져서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은 주(州)를 타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과 내를 표지로 삼아 모두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리치며 서로 빼앗으니, 한 이랑의 주인이 5~6명을 넘고 1년에 조(租)를 거두는 것이 8~9차례에 이릅니다.
- 『고려사』

- ①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 되었으며, 관료들은 경기도 땅에서 최고 150결,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지로 받았다.
- ② 관료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으며, 시지는 14등까지만 주었다.
- ③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었다.
- ④ 인품과 관품에 따라 최고 100결에서 최하 20결의 토지를 주었으며, 상층 향리에게도 주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